

UTOCO Deep Sea Therapy Center & Hotel

우토코 달사 테라피 센터 & 호텔

한국 디자인 어워드: 빌리지 콘크리트(BC, B.C.) - Pantai Karet | www.mtkhigh.com | BC Construction
マキシム賞, Kochi-jim, Japan | 3,071m² | Entrance, Restaurant, Floor, Exposed Concrete, Gable, Wall, Plywood Board
Exposed Concrete, ACP Painting, Aluminum Sash / Casting Plaster Board, ACP Painting, Panels ~ Poor Design, Tie, Exposed Concrete,
WPL, Plywood Board, ACP Painting, Tie, Exposed Concrete, Casting Plaster Board, Aluminum | Pantai Karet
한국 디자인 어워드: 바다 푸드 콤팩터(BC, B.C.) - 캠코리아 | 4,030m² | ACP판, 캐스팅 페스터 판, 알루미늄 | Pantai Karet
한국 디자인 어워드: 바다 푸드 콤팩터(BC, B.C.) - 캠코리아 | 4,030m² | ACP판, 캐스팅 페스터 판, 알루미늄 | Pantai Karet
한국 디자인 어워드: 바다 푸드 콤팩터(BC, B.C.) - 캠코리아 | 4,030m² | ACP판, 캐스팅 페스터 판, 알루미늄 | Pantai Karet
한국 디자인 어워드: 바다 푸드 콤팩터(BC, B.C.) - 캠코리아 | 4,030m² | ACP판, 캐스팅 페스터 판, 알루미늄 | Pantai Karet



UTOCO Deep Sea Therapy Center & Hotel is located in nature where green mountains and white turbulent waves are harmonized. The hotel, which focuses on health craze, presents comfortableness through the natural design.

Shapes and forms transcend to the spirit: curves are comforting, circles reassure and horizontality calms down the senses. The shapes are made simple, pervasive, relaxing, of pure origin as ovoid and circles, gently melting with soft cavities in shell-like, fish belly or bay forms. This Hotel and Thalasso Therapy Center comes to embrace a new culture linked to the phenomenal powers of deep sea water and answering the demand for the growing awareness of wellness concerns. With simple design without excess, the space provides the customers with relaxing environment. Each guestroom is clad in white and primary red color, and dim illumination emphasizes the space, creating a calm atmosphere.

UTDCD Deep Sea Therapy Center & Hotel attracts people with its extraordinary shape and simplified image, establishing itself as a perfect space for 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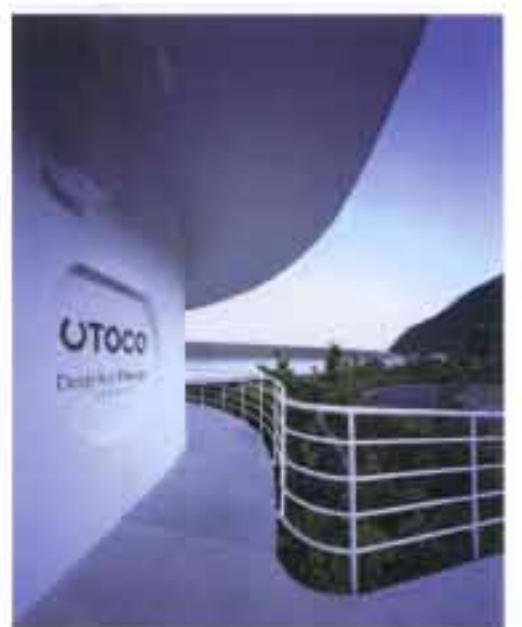
주론 산파-시천스업과 무서 시는 파도가 한대 어우러져 있는 자연 속에 우교가 위치했다. 이곳은 현재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웰빙과 소偿을 맞춘 복합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패밀리를 뜯어하고 있다.

우트코의 의견은 자연과 어우러져 전자적인 요소로 유희의 향상을 끈다. 관에서 보이는 극선은 면안함을, 원은 한도감을, 수평선은 갑작히 진정 과정을 끌어 넣으려 미궁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식을 허락하는 풍경을 제공한다. 디자이너는 처음 공간을 계획할 때 말과 본에서 이드 스크린을 이용하고자 했으며, 고개나 둘고기의 채, 전의 형태에 보이는 유희 패턴을 만족할 하니의 건물에 유희시켜 단순하면서도 편안한 공간으로 창조하였다. 또한, 이곳은 호령과 더불어 삼대티프센터를 동시에 운영해 두 가지 휴식을 준다. 바깥에 위치한 실내 휴수 요법은 손에 수제 흙으로 만든 블록은 힘과 기운 개념에 최초의 개념을 모아서 새로운 문화로 전된다. 미는 표준 회의 대형 관람석인 건강에 대한 주제를 시원스럽게 해석해 듯하다. 공간은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유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선사하고 있으며, 공간의 연출은 차단점이 없어 심풀하게 꾸며졌다. 그래서 모든 매실과 그의 공간들은 화이트 컬러로 데드 월리의 원색 사용으로 단한 느낌으로 표현되었고, 날은 조도의 사용으로 공간을 더욱 품보이게 분위기를 차운하게 만들었다.

길을 하며 구슬부 우르고는 빠리한 외관과 달콤한 느낌의 아내지도 사랑에게 휴식을 취하기 다할 나위 없는 공간으로 만석되어 사람들의 갈길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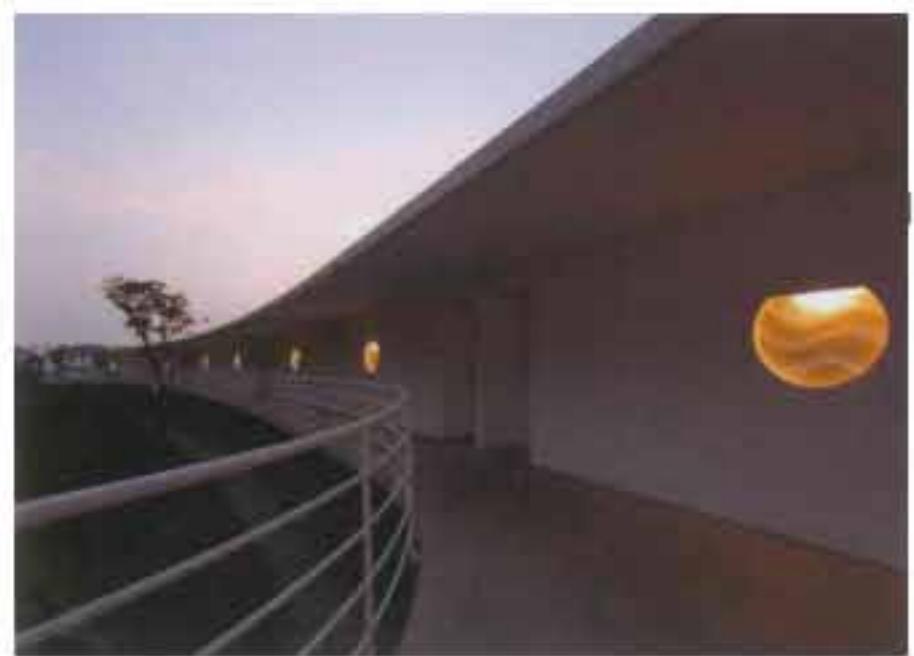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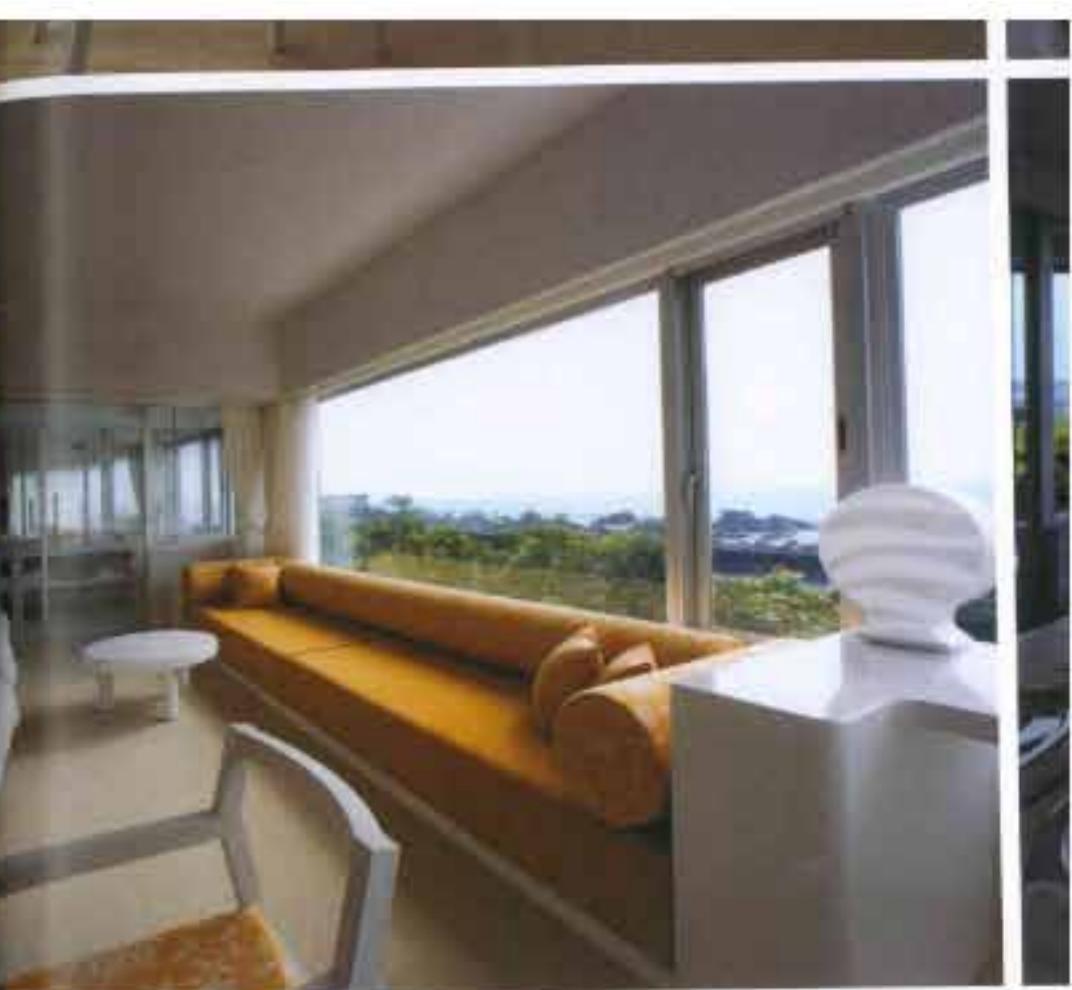


Exterior facade





Road of room from Entrance



2nd Floor p